

진짜사장·진짜교섭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 현대제철비정규직·내화조업정비 현대모비스 아산·천안·서산·아산물류·EBS천안 비엠아이

금속노조 조합원 1만7천명, 17개 원청 상대 단체교섭 요구 민주노총 7만여명 요구... 한화오션, 현대重 교섭요구사실 공고 게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원청교섭 요구가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3월 11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357개 단위노조 67,200여명이 218개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노총까지 포함하면 원청교섭 요구 노동자 수는 현재까지 10만명이 넘습니다.

금속노조는 3월 16일 현재 169개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57개 지회 1만7천여명의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한국지엠, 한화오션,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등 17개 원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 건설, 서비스 등 다른 산별 동지들도 쿠팡, CJ, 백화점·면세점, 콜센터, 교통공사·공항공사, 대학교, 지자체 등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전 산업과 직종을 망라하여 다단계 착취구조가 얼마나 넓고 깊게 자리잡고 있는지, 원청교섭 투쟁에 나서며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존 1월 단체교섭 요구를 한 단위에 더해 3월 10일 이후 모든 단위가 일제히 원청교섭 요구 △ 동일한 원청자본 대상의 유사한 하청·자회사 지회도 모두 교섭 요구를 하여 단체교섭권을 확보 △ 원청과 하청 단체교섭을 병행하여 추진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부정하더라도 원청교섭 성사 투쟁을 중단없이 이어갈 것 등을 원청교섭 세부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이상호 충남지부장과 현대제철 비정규직 당진·순천지회장,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 지회장이 함께 현대제철 본관을 찾아갔으나 현대제철은 통제센터 문을 봉쇄하고 직접 공문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금속노조 교섭요구에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한 원청은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 뿐입니다. 두 원청 사용자는 "법에 따라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사 어느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에 묵묵무답입니다. 그룹 본사 '양재동'에서 계열사 사장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월말 요구안 발송과 4월 상견례 돌입으로 갑니다. 저들이 어떻게 임하든, 우리는 지금부터 실질적이고 완강한 총파업을 준비합니다.



현장이야기 4 **이러고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모비스는 자회사 매각 철회하라!**

현대모비스가 모트라스-유니투스 자회사를 설립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입사를 종용할 때, 우리는 회사가 말하는 '미래지향 노사관계'와 '고용안정'은 사기이자 허구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제철 자회사(현대IFC)도 설립 이후 매각 대상이 되며 '자회사'가 덩치만 커진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부터 언론에 오르내리던 매각설이 결국 현대모비스가 램프 사업부(유니투스 김천, 현대IHL 경주) 매각 MOU를 체결을 하며,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프랑스 기업입니다.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든, 유니투스든 노조에 사전통보하고 협의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니투스는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를 무시했고 매각 추진과 결정은 현대모비스가 비밀리에 처리했습니다. 유니투스는 현대모비스의 일개 사업부, 생산하청기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동자들이 원청교섭 투쟁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유니투스 5개 지회는 유니투스 상대로 임단협 조기교섭에 돌입했고, 현대모비스 상대로 3월 10일 원청교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충남지부에는 EBS천안지회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군살빼기' '체질개선'에 나섰다 분석입니다. 현대모비스 램프 사업부 매각 여파는 도미노처럼 다른 부품사 공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청교섭 투쟁에 모든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고용은 자본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